

한국인 사회의식
심층분석 보고서

Kstat Report

사회지표 || 2023년 7월 13일

케이스탯 2023년 7월 사회지표

■ 월 정기 지표

- _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올바른 방향' 39%, '황보'
- _ 경제 방향성 : '올바른 방향' 33%, '소폭 상승'
- _ 정부 신뢰도 : '신뢰' 34%, '소폭 상승'
- _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28%, '소폭 하락'
- _ 정당 호감도 : 호감 정당 '있다' 27%, '황보'
- _ 다음 달 물가 전망 : '오를 것' 59%, '소폭 하락'
- _ 부동산 가격 전망 : '오를 것' 36%, '소폭 상승'
- _ 주식 가격 전망 : '내릴 것' 27%, '소폭 상승'
- _ 자기 삶 평가 : '고군분투' 64%, '고통' 22%, '번창' 14%

■ 7월 특별지표 : 한국 사회 우려 이슈

- _ 한국 사회 우려 이슈 : '지도층 부패', '불평등', '물가'

Kstat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6월 30일(금) ~ 7월 2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1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7\%p$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3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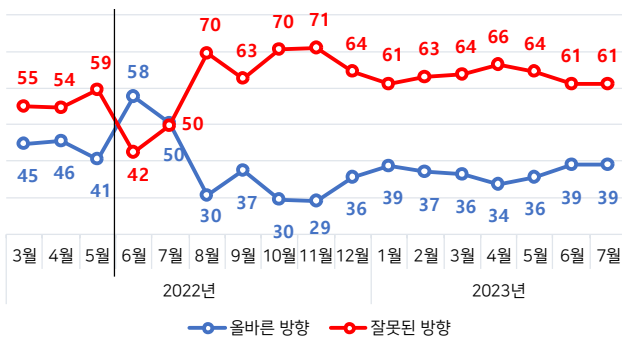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7월 정기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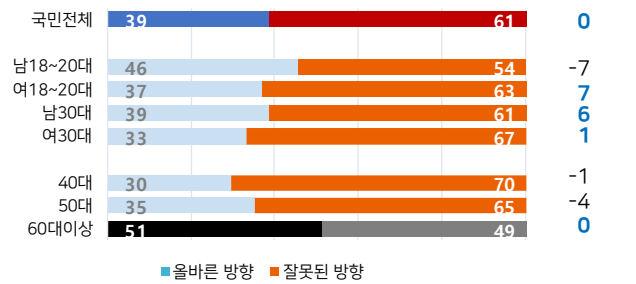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올바른 방향' 39%, 황보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전월과 같은 39%를 기록함
 - 2023년 7월 조사 결과, '올바른 방향' 39% vs '잘못된 방향' 61%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30대 △40대 △호남 △진보층 △자영업자 등에서 높았음
- '올바른 방향' 응답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TK, PK △학생 등이었음
 - △60대 이상 △보수층 △사회이익중시층은 긍·부정 평가가 팽팽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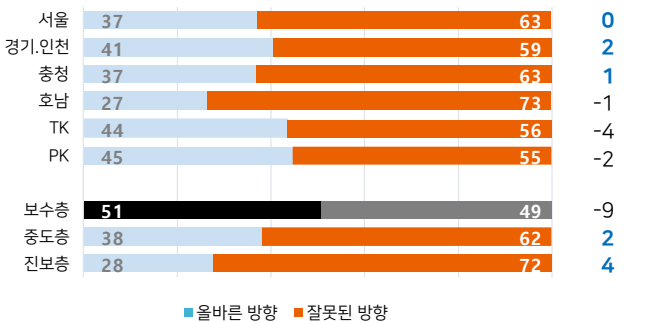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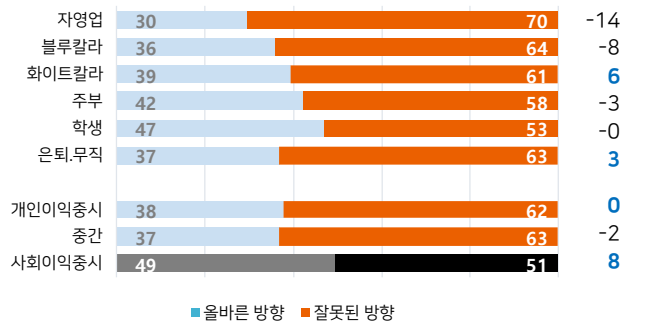
2023년 7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국민전체,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3.07.02.조사,단위:%)



7월 대한민국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단위:%)



7월 대한민국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익중시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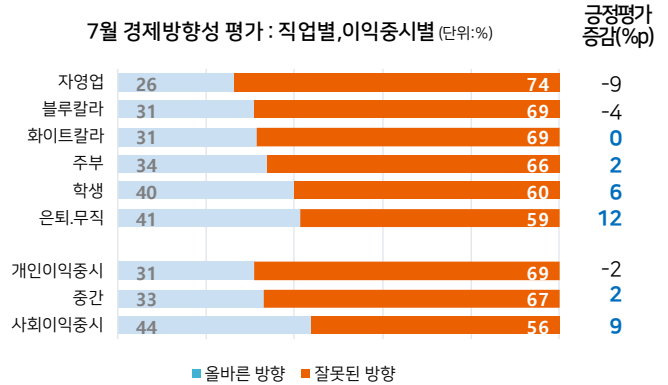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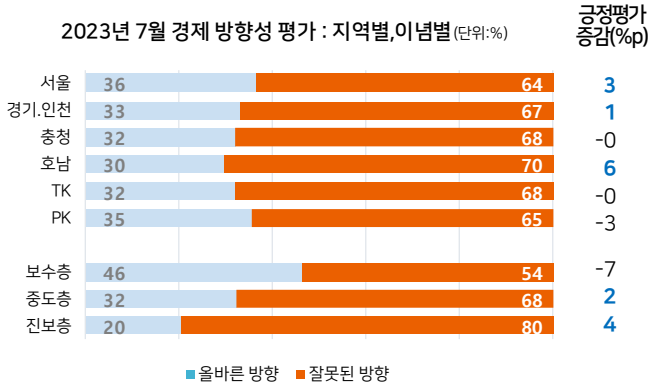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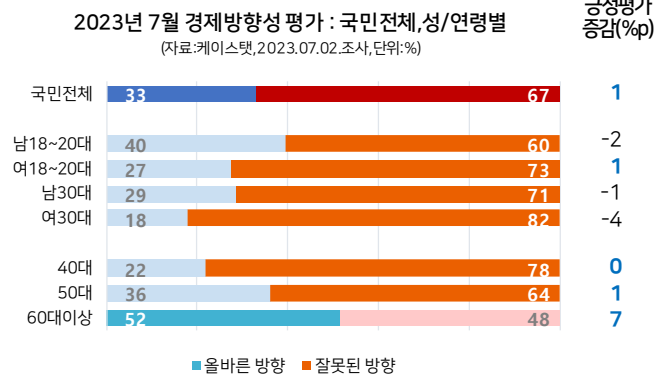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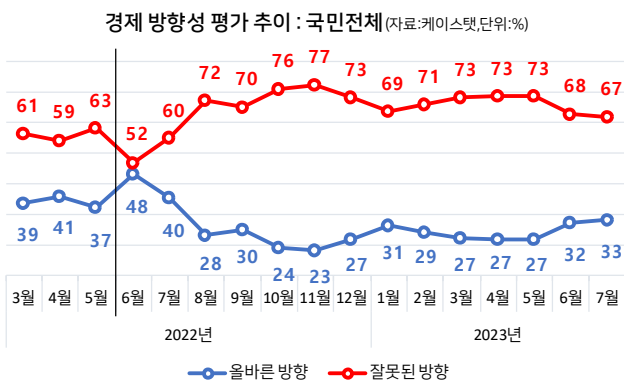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지난 4월 이후 2개월 연속하던 대한민국 방향성에 대한 긍정평가 상승세가 멈추며, 지난달과 동률인 39%를 기록함
 - :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도 지난 4월 이후 점진적으로 오르다, 최근에는 30% 중반대에 머물러 있음
 - : (NBS)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추이 : 4월 4주 32% → 5월 4주 36% → 6월 4주 36%
 - : (갤럽)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추이 : 4월 4주 30% → 5월 4주 36% → 6월 4주·5주 각 36%
-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란 지속,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베트남 순방, 수능 킬러문항 배제 관련 논란 및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 재정정책 확립 등 지난 한 달 동안의 주요 국정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 여론이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경제 방향성 : '올바른 방향' 33%, 소폭 상승

-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2개월 연속 상승하며 33%를 기록함
 - 2023년 7월 조사 결과, '올바른 방향' 33% vs '잘못된 방향' 67%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하며, 특히 우세한 계층은 △여자 2030세대 △40대 △자영업자 등임
- '올바른 방향'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60대 이상뿐인 가운데, △남자 18~20대 △보수층 △학생, 은퇴·무직자 △사회이익 증시층 등에서도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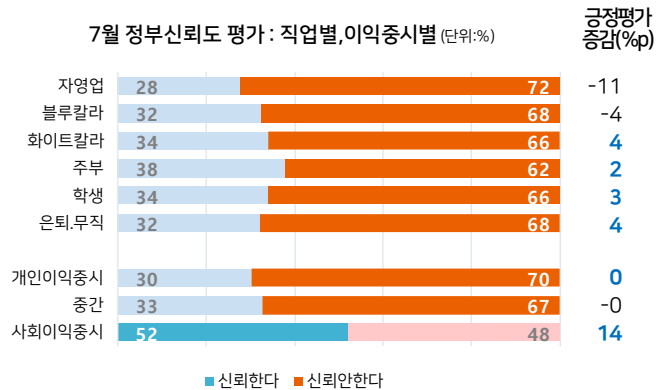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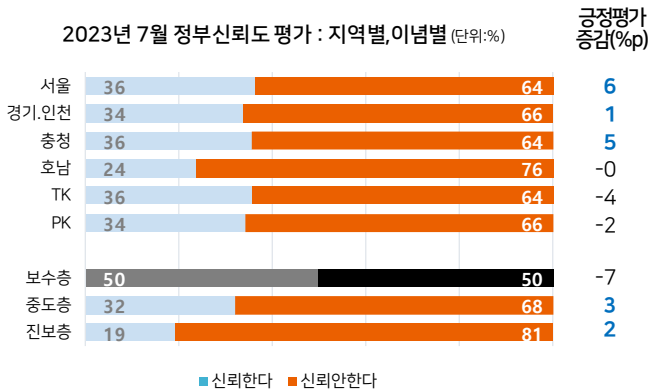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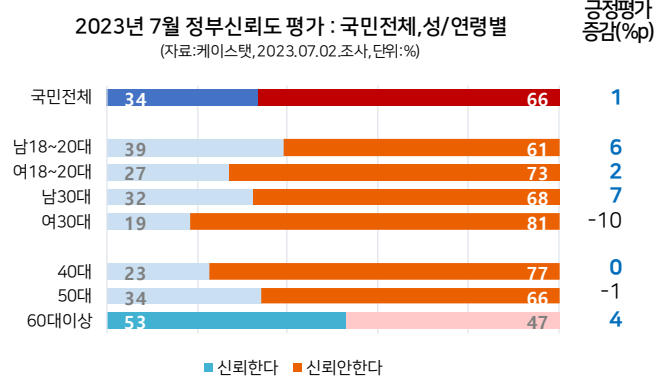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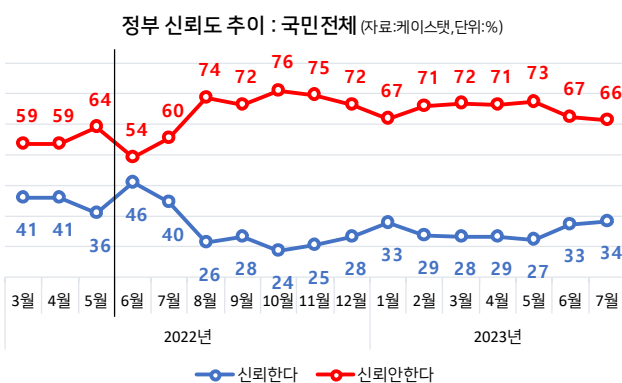


Kstat Point

- ☑ 경제 방향성에 대한 긍정평가가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수치 33.0%를 기록함
 - 지난해 8월 전월 대비 대폭(12%p) 하락하며 28%를 기록한 이후 지난 5월까지(올 1월 제외) 30%를 밀돌다 최근 2개월 연속 30%를 웃돌았으며, 이번 달은 전월 대비 소폭(1%p) 상승함
- ☑ 이는 경제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된 모습으로, 지난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에서도 이 같은 양상이 포착됨
 -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데다 지난해 5월(102.9) 이후 1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 100을 상회함
 - 또한, 소비자심리지수(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가 전월 대비 모두 상승한 가운데, 현재경기판단(69)과 향후경기전망(7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 폭(각각 5p, 4p)을 보였음
 - 소비자들의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이 긍정·낙관적으로 전환되며,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보임

□ 정부 신뢰도 : '신뢰' 34%, 소폭 상승

- 정부를 '신뢰한다' 응답이 소폭 상승하며 34%, '신뢰하지 않는다' 응답은 소폭 하락해 66%를 기록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2030세대 △40대 △호남 △진보층 △자영업자 등에서 두드러짐
- '신뢰한다' 응답이 더 우세한 계층은 △60대 이상 △사회이직 중시층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18~20대 △주부 등에서도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보수층은 긍·부정 응답이 각각 50%로 반으로 나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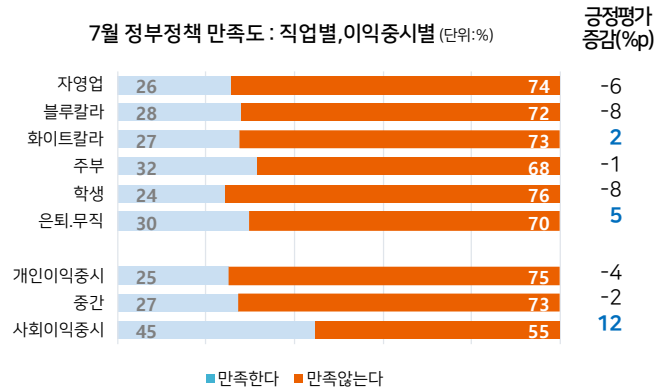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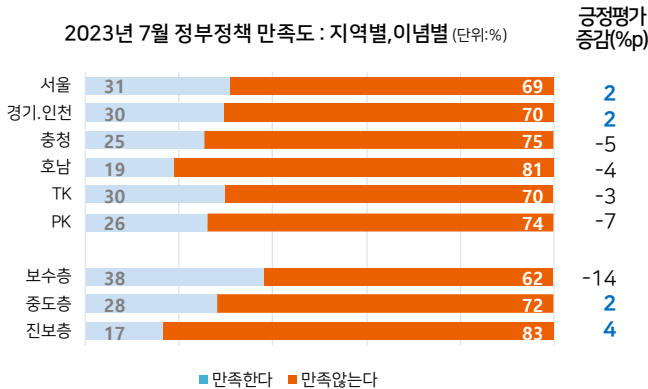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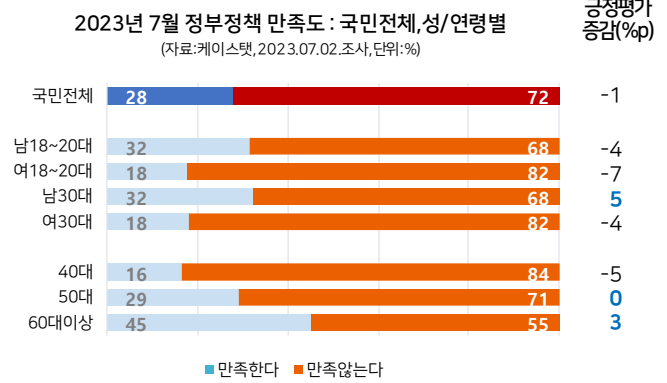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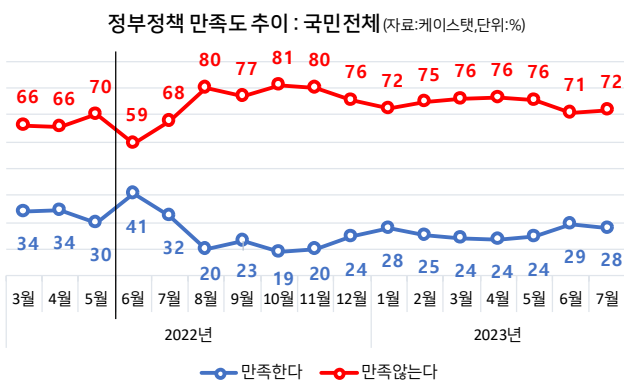


Kstat Point

- ☑ 작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체로 20% 중후반선의 답보상태에 있던 정부 신뢰도가 최근 30%선으로 올라섰는데,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임
 -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 점과 잘못하고 있는 점에서도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감' 응답이 소폭 증가하고, '일관성이 없고 신뢰하기 어려움' 응답은 소폭 감소함 ※ 자료 : NBS
 - ： 대통령 국정운영이 '일관성 있고 신뢰가 감' 응답 추이 : 5월 4주 7% → 6월 2주 6% → 6월 4주 8%
 - ： 대통령 국정운영이 '일관성 없고 신뢰하기 어려움' 응답 추이 : 5월 4주 11% → 6월 2주 9% → 6월 4주 9%
- ☑ 다만, 국민의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정부의 전문성·유능함, 정책산출 및 성과 등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저조해, 정부 신뢰도가 단기에 상승할 여력은 작은 상황임
 - ： 대통령 국정운영 관련 '정책성고가 좋음' 응답 추이 : 5월 4주 3% → 6월 2주 4% → 6월 4주 3%
 - ： 대통령 국정운영 관련 '유능하고 합리적임' 응답 추이 : 5월 4주 3% → 6월 2주 3% → 6월 4주 3%

□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28%, 소폭 하락

- 정부 정책을 '만족한다' 응답은 소폭 하락하며 28%, '만족 않는다' 응답은 소폭 상승해 72%를 기록함
- 모든 계층에서 '만족 않는다'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2030세대 △40대 △호남 △진보층 등에서 높았음
- '만족한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계층은 △남자 2030세대 △60대 이상 △보수층 △주부 △사회이익 중시층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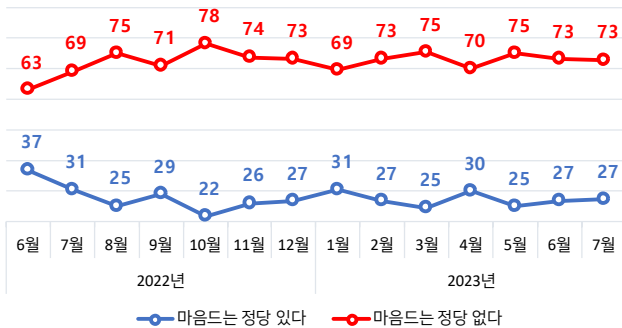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정부 정책 만족도가 20%로 급격히 하락했던 작년 8월부터 최근 1년 동안 20%대의 박스권에 갇힌 양상임
- ☑ 정부의 정책 발표 및 추진 과정의 혼선과 논란들이 지속되며, 국민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지난해 8월 본 보고서는 '소상공인·청년 빚 탕감 정책의 모럴해저드', '행전안전부 경찰국 신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 등과 관련한 각종 정책이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한 점을 악재로 분석함
 - 이후에도 '표현의 자유 및 언론정책', '한일 정상회담 관련 저자세 외교' 등의 논란이 있었으며, 올 상반기에도 '주 최대 69시간제', '수능 킬러문항 배제·사교육 개혁'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혼선 및 논란이 빚어짐
 - 작년 말~올해 초에는 '화물연대 총파업 엄정 대응', '세계 5대 수출강국 등 경제비전 제시', '교육·연금·노동 3대 개혁 과제 제시' 등으로 정책 만족도가 잠시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고, 지난 5월~6월에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증가한 모습이 포착됐지만, 정책 만족도는 여전히 20%선에서 고전함
- ☑ 아울러 고물가·고금리·저성장 국면 속 국민의 경제적 고통의 크기에 비례해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 정책에 대한 국민 기대와 요구 수준이 높지만, 정부가 이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부정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임

□ 정당 호감도 : 호감 정당 '있다' 27%, 홍보

- 정당 호감도 관련,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이 지난달과 동률인 27%를 기록함
 - 7월 조사 결과, '마음에 드는 정당 있다' 27% vs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73%
- 모든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여자 2030세대 △충청, 호남 △중도층 등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긍정 응답이 높은 계층은 △60대 이상 △경기·인천, TK △보수층, 진보층 △은퇴·무직자 △사회이익 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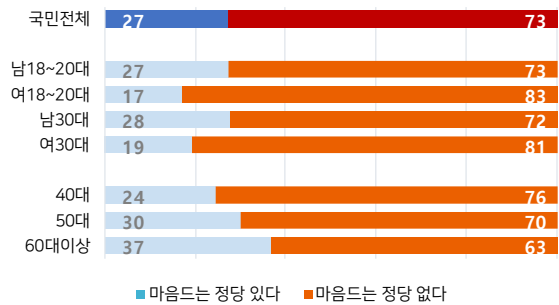
정당 호감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2023년 7월 정당 호감도 : 국민전체,성/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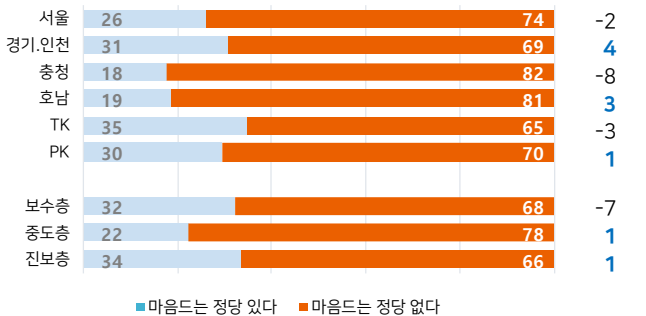
(자료:케이스탯,2023.07.02.조사,단위:%)

긍정평가
증감(%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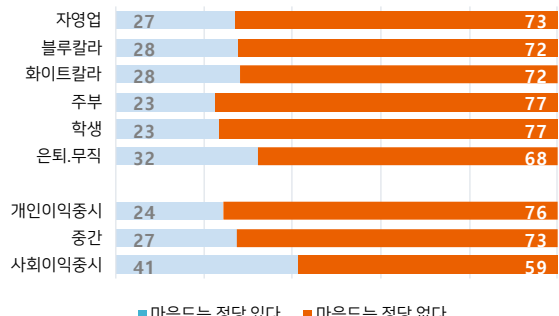
2023년 7월 정당 호감도 : 지역별,이념별 (단위:%)

긍정평가
증감(%p)



2023년 7월 정당 호감도 : 직업별,이익중시별 (단위:%)

긍정평가
증감(%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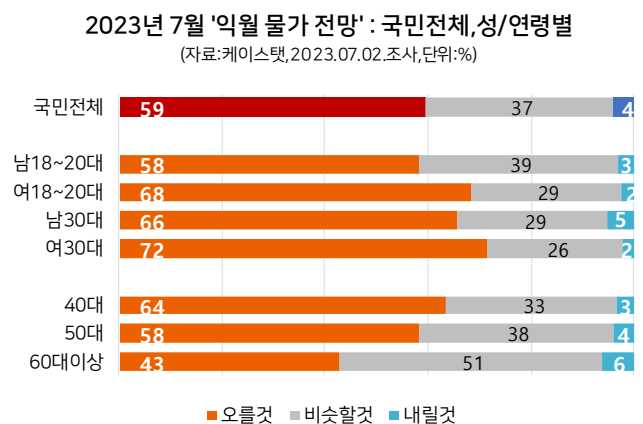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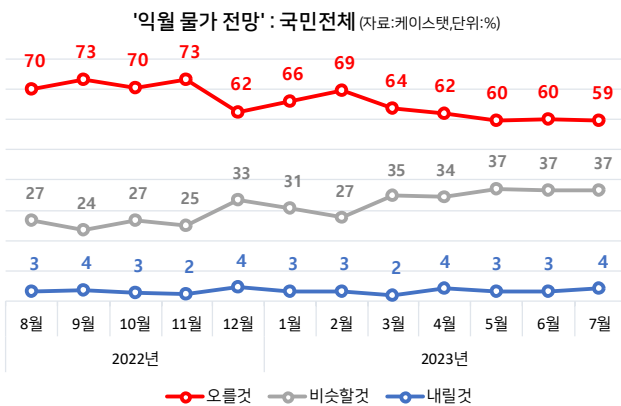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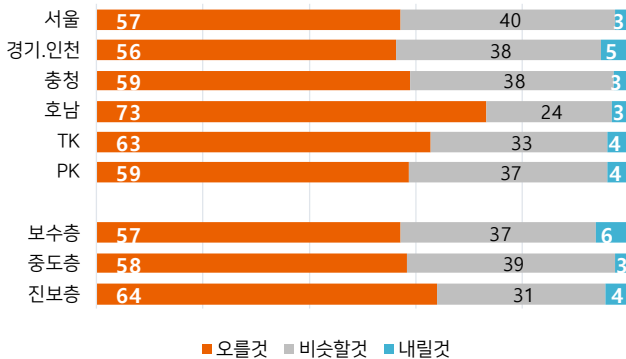
- ☑ 정당 호감도가 지난달과 같은 27.0%를 기록함
 - : 전월 대비 계층별 여론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 18~20대, 충청, 보수층, 주부 등에서 정당 호감도가 큰 폭 하락함
 - : 반면, 남녀 30대, 경기·인천, 자영업자, 은퇴·무직자, 사회이익 중시층 등에서는 정당 호감도가 크게 상승함
- ☑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 정당의 지지도도 30% 초·중반대에서 엇치락뒤치락하며, 접전을 이어가고 있음
 - :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각 정당 지지도) 6월 1주 35%·32% → 3주 34%·34% → 4주 35%·31% → 5주 34%·33% → 7월 1주 33%·32% ※ 자료 : 한국갤럽
-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TV 수신료 분리징수, 수능 킬러문항 배제, 사드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국정 아젠다 및 사안마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과 반목이 지속하고 있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 피로감과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 동안 어느 한 정당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다음 달 물가 전망 : '오를 것' 59%,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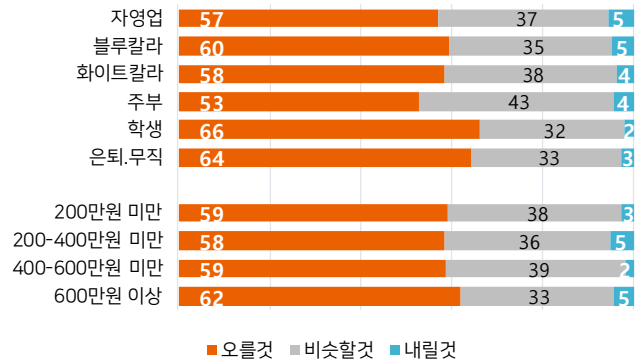
- 다음 달 물가 전망에 대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소폭 하락하며 60%를 밑돌았음
 - 7월 조사 결과, '지금보다 오를 것' 59%, '지금과 비슷할 것' 37%, '지금보다 떨어질 것' 4%
- 모든 계층에서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2030세대 △남자 30대 △40대 △호남 △진보층 △학생, 은퇴·무직자 등에서 높았음
- 한편,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계층은 △60대 이상 △주부 등임



2023년 7월 '익월 물가 전망' : 지역별,이념별 (단위:%)



2023년 7월 '익월 물가 전망' : 직업별,소득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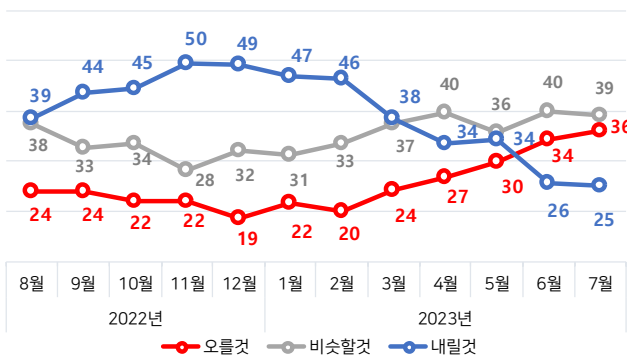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지난 2월 이후 다음 달 물가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지금과 비슷할 것' 응답은 지난 5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하다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는 중임
- ☑ 국민들은 '물가가 더는 오를 것 같지 않지만, 이미 많이 오른 물가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그 부담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 ☑ 실제로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인 물가 인식은 최근 지속 하락세를 보였고, 향후 1년간 물가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하락세가 멈춤
 - : 물가 인식은 지난 2월(5.2)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6월에는 4.6을 기록함
 - :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2월 4.0%에서 3개월 연속 하락한 후 6월은 5월과 같은 3.5%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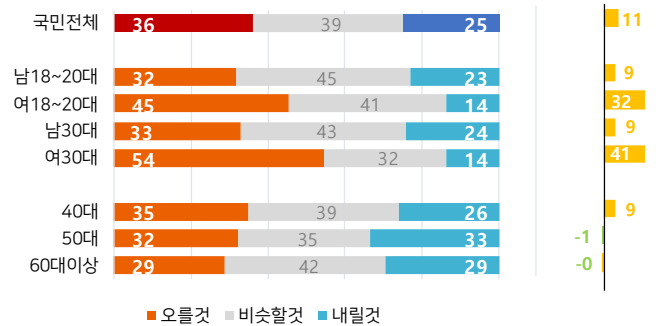
□ 부동산 가격 전망 : '오를 것' 36%, 소폭 상승

- 부동산 가격 전망 관련, '지금보다 오를 것' 응답이 최근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7월 조사 결과, '지금과 비슷할 것' 39%, '지금보다 오를 것' 36%, '지금보다 내릴 것' 25% 순으로 조사됨
- 계층별 '차이'(오를 것-내릴 것)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망했으며, 특히 △여자 2030세대 △호남, TK △학생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에서 응답이 두드러짐
- 반면, 부동산 가격 하락을 전망한 계층은 △50대 △자영업자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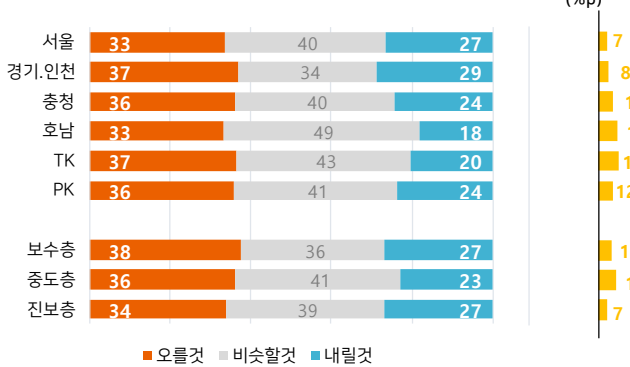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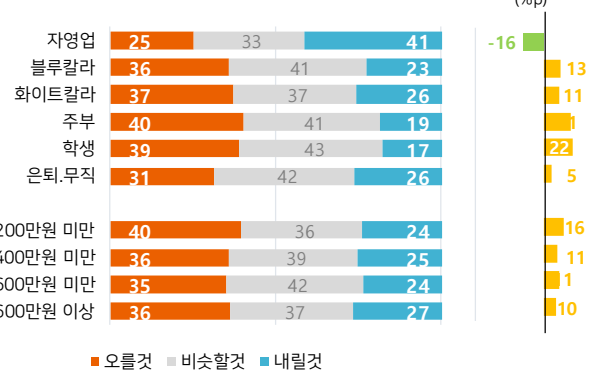
2023년 7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국민전체,성/연령별 (단위:%)



7월 '향후 부동산 전망': 지역별,이념별 (단위:%)



7월 '향후 부동산 전망': 직업별,소득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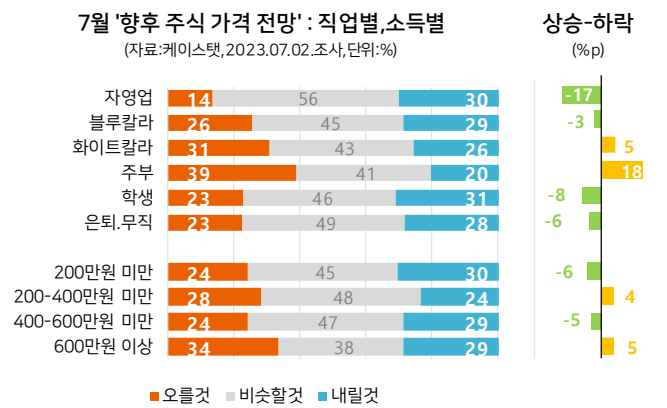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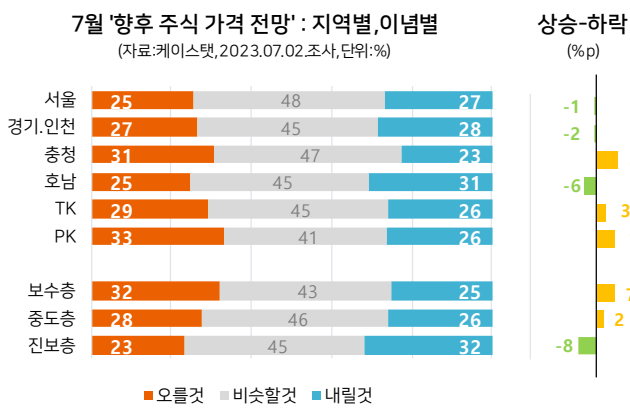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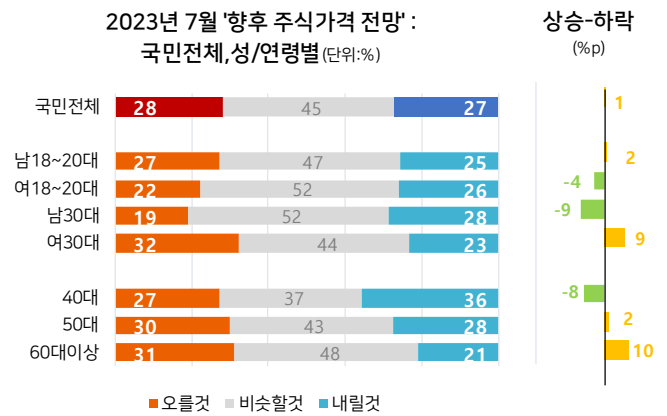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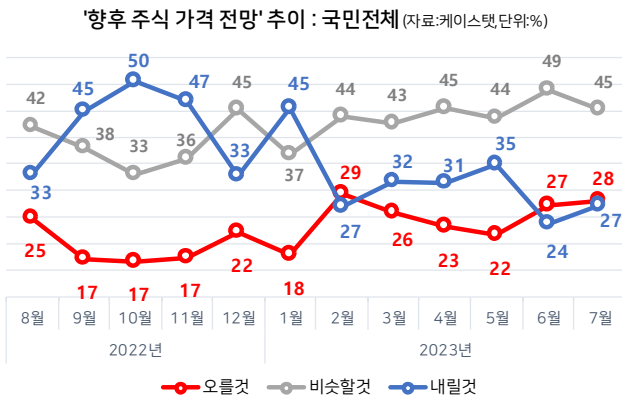


Kstat Point

- ☑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의 오름세와 하락 전망의 내림세가 지속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 우위세가 뚜렷함
- ☑ 이달 초 앞으로 1년간 집값 전망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집값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가운데,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집값 상승 전망은 큰 폭(+7%p) 상승, 하락 전망은 큰 폭(-14%p) 하락했음
 - : 7월 1주, 향후 1년간 집값이 현재보다 '오를 것' 25% < '내릴 것' 37%, '변화 없을 것' 28%
 - : 4월 2주, 향후 1년간 집값이 현재보다 '오를 것' 18% < '내릴 것' 51%, '변화 없을 것' 22% ※ 자료 : 한국갤럽
- ☑ 이 같은 조사결과를 볼 때, 현재 국민들은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오르진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주식 가격 전망 : '내릴 것' 27%, 소폭 상승

- 주식 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것' 응답과 '지금보다 내릴 것' 응답은 각각 소폭 상승하고 '지금과 비슷할 것' 응답은 큰 폭 하락함
 - 7월 조사 결과, '지금과 비슷할 것' 45%, '지금보다 오를 것' 28%, '지금보다 내릴 것' 27% 순으로 조사됨
- 계층별 '차이'(오를 것-내릴 것)를 살펴보면, 계층별로 응답이 엇갈렸으며 주가 상승 전망은 특히 △여자 30대 △60대 이상 △충청, PK △보수층 △화이트칼라, 주부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층 등에서 높았음
-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계층은 △남자 30대 △40대 △호남 △진보층 △자영업자, 학생, 은퇴·무직자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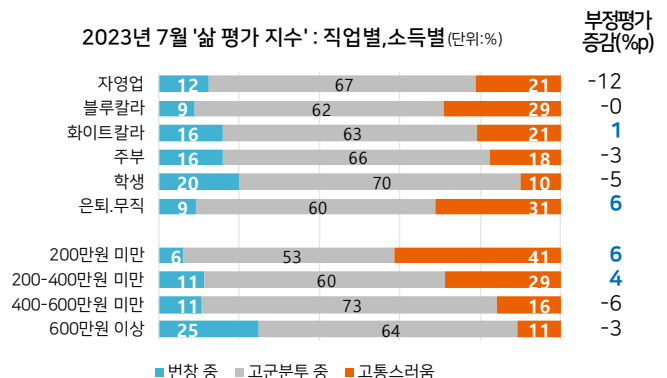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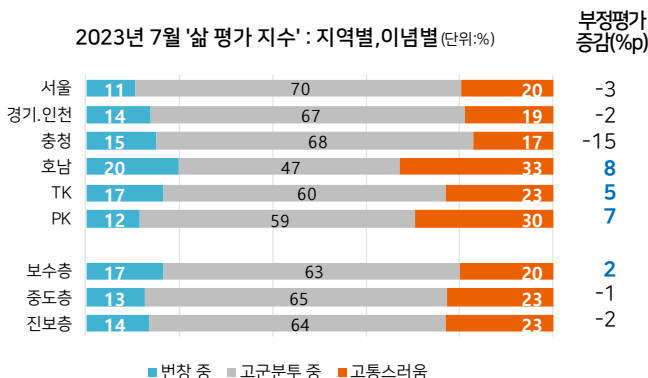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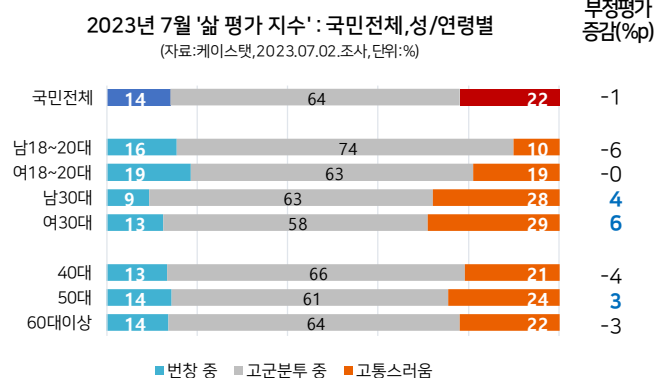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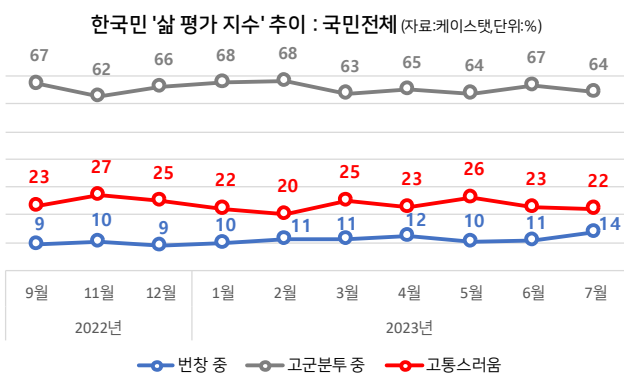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지난달 급격히 하락했던 주가 하락 전망세가 이달에는 소폭(+3%p) 올랐으며, 이는 주가 상승 전망 오름폭(+1%p) 보다 컸음
- ☑ 이달 들어 코스피 거래대금이 감소한 가운데, 증시 전문가들의 하반기 전망도 다소 엇갈리고 있음
 - :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달 들어 지난 6일까지 유가증권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약 8조2천억원)이 지난달(약 10조원) 대비 18% 감소함
 - : 하반기 증시전망 관련, 미국의 금리 인상 종결 및 반도체 기업 실적 회복 등으로 하반기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세계 및 국내 경기 부진, 미국의 긴축 지속 등으로 국내 증시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하고 있음

□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 '고군분투' 64%, '고통' 22%, '번창' 14%

- 국민들의 '삶 평가 지수'를 유형화해 살펴본 결과, '고군분투하고 있다' 응답과 '고통스럽다' 응답은 소폭 감소하고, '번창 중' 응답은 소폭 증가함
 - 7월 조사 결과, '고군분투하고 있다' 64%, '고통스럽다' 22%, '번창하고 있다' 14% 순으로 나타남
 - ※ 현재와 약 5년 후의 자기 삶의 단계를 '최악' 0점 ~ '최고' 10점 사이에서 평가한 후, 3가지로 유형화함
 - ① 번창하고 있다(Thriving) : 현재 7점 이상, 미래 8점 이상 ② 고군분투하고 있다(Struggling) : 유형 1·3 외 전체 ③ 고통스럽다(Suffering) : 현재·미래 4점 이하
- '삶 평가 지수'의 유형별 비중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고통스럽다' 유형이 우세하고,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30대 △호남, PK △블루칼라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임
- '번창하고 있다' 유형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학생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뿐인 가운데, △여자 18~20대 △호남 등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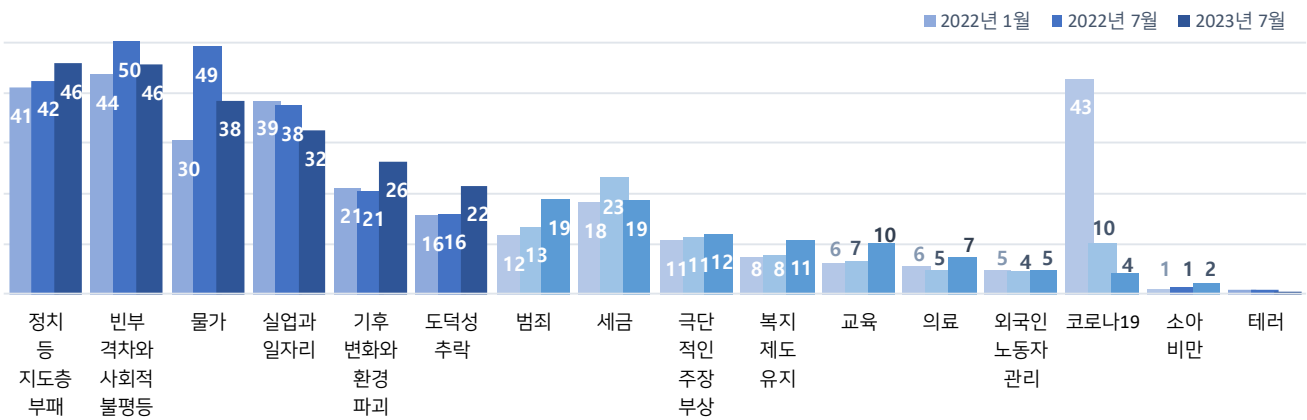
- ☑ 행복감은 자기 삶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만족도를 바탕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소득계층별 행복감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행복 수준은 고소득층의 약 4분의 1에 불과했음
 - :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층의 '번창 중' 응답(25%)은 200만원 미만층(6%)보다 4배 이상 높았음
 - : '고통스러움' 응답은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층(11%)이 200만원 미만층(41%)보다 약 4분의 1가량 낮았음

7월 특별지표 : 한국 사회 우려 이슈

□ 한국 사회 우려 이슈 : '지도층 부패', '불평등', '물가'

-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 중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이슈는 '정치 등 지도층 부패'(46%),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46%), '물가'(38%), '실업과 일자리'(32%) 등으로 조사됨
 - "선생님께서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 다음 중 어떤 문제가 걱정되세요? 3가지만 골라주세요"라는 질문 후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제시한 결과임
 - ① 실업과 일자리 ②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③ 정치 등 지도층 부패 ④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 ⑤ 복지제도 유지 ⑥ 범죄 ⑦ 세금 ⑧ 교육 ⑨ 물가 ⑩ 극단적인 주장 부상 ⑪ 의료 ⑫ 외국인 노동자 관리
 - ⑬ 테러 ⑭ 소아 비만 ⑮ 도덕성 추락 ⑯ 코로나19
- 그다음은 '기후변화와 환경파괴'(26%), '도덕성 추락'(22%), '범죄'·'세금'(각 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가장 낮은 우려를 보인 이슈는 '테러'(1%)와 '소아비만'(2%), 그다음은 '코로나19'(4%), '외국인 노동자 관리'(5%) 등으로 조사됨

한국사회 우려 이슈(복수응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3.07.02.조사,단위:%)



Kstat Point

- ☑ 우리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사회이슈 Top 4는 '정치 등 지도층 부패',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각 46%), '물가'(38%), '실업과 일자리'(32%) 순으로 나타남
 - : 작년 7월 조사결과와 비교해 순위 변동은 있었지만, 우려 이슈 상위 4개는 동일했음
- ☑ 해당 4개 이슈에 대한 우려는 한국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높았음
 - : 지난 5월 입소스 조사결과('What Worries the World')에 따르면, 세계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회이슈 Top 5로 '물가'(41%),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30%), '범죄'(29%), '금융 및 정치 부패', '실업과 일자리'(각 27%)가 꼽힘
- ☑ 한편, '정치 등 지도층 부패'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진 점이 눈에 띄었는데, 국민들은 정치인·공직자들의 부도덕과 부정부패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그만큼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도 높아진 상태로 보임
 - : 작년 말 국민권위위원회 발표 '2022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정당·입법, 사법, 행정 기관, 언론, 공기업,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11개의 사회분야 집단 중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부패한 집단은 '정당·입법(정치권)'으로 나타났음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77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79호는 『우리사회 '다양성' 및 '포용성' 평가』이라는 주제로 2023년 7월 20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